글 | 이상문 협회 특수업무부 대리

대형재해에 따른 해외 재보험시장 동향

최근 대재해 발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손실이 증가되고 담보력이 축소되어 보험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계 재보험업계가 대형 재해 및 배상책임 보험 클레임 증가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기에 대형위험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색화 상황 속에서 국내 보험사 간의 거래 확대와 더불어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한 위험도 평가와 기술적 내부 역량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 머리말

작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04년도에 허리케인(이반, 찰리, 프란시스, 진), 태풍 송다, 뭄바 가스공장 화재폭발, 쓰나미에 이어 올해에도 카트리나, 리타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다. 본 고에서는 2006년 갱신을 앞두고 대형재해에 따른 내년도 갱신동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대재해 재보험시장의 경색화

흔히 대재해 재보험시장은 세계 재보험시장의 변화를 선도한다고 한다. 재보험회사는 재보험영업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진, 태풍 등 대재해로 야기될 수 있는 막대한 누적손실에 대비한 재재보험, 일명 Catastrophe Cover를 구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주로 인수하는 재재보험자의 담보력이 사실상 재보험시장 전체의 인수능력을 결정짓게 된다. 로이드 등 유수의 재보험자는 물론 중소형 재보

험자들은 적정한 재재보험 담보를 구득해야만 안정적인 재보험 영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미국에 카트리나, 리타 발생 등으로 인해 전 세계 보험업계는 막대한 자연재해 손실을 기록하였고 이는 곧바로 대재해 재보험시장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대재해 재보험시장의 변화는 특히 재보험시장 전반의 가격 및 담보력 수급구조에 영향을 주었으며 보험료 증액, 공제금액한도 인상, 보상한도액 감소 등 시장 경색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 경색화의 주요 요인으로, 첫째는 '대재해 관련 손실 증가' 이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인재를 포함한 대재해 건수는 1980년 이후 연 평균 250회를 넘고 있으며,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연 평균 보험손실액은 200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발생한 대형재해 40건 중 27건이 최근 10년 내 발생한 사고로, 산업화와 도시개발 진전에 따라 보험 가입률 증가 등 보험담보 대상이 확대된 것 외에도 기후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이례적인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인해 관련 보험손실액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

1999년의 경우 대만 지진, 터키 지진 및 유럽 폭풍으로 인해 300억 불 규모의 보험손실을 기록하였고, 2001년에는 WTC테러라는 유례없는 대형 인재로 인해 600억 불이 넘는 사상 초유의 보험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타로 인하여 250억 불 정도의 보험손실이 발생하였다.

대재해 발생 증가추세에 따라 보험업계의 재보험담보 구득 수요는 계속 증가한 반면, 담보력을 제공하는 재보험자의 담보력은 영업실적 악화로 인해 감소하게 되어 현저한 수요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는 '재보험자 수익성 악화' 이다.

세계 재보험업계는 최근의 대형 재해 및 배상책임보험 클레임 증가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주주로부터의 실적개선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켰으며 재보험사는 언더라이팅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적정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수익실현이 불투명한 계약에 대해서는 담보력 제공을 기피하고 있다.

■ 표 1. 최근 주요 재해별 보험피해액 현황 (단위 : 억)

재 해 명	일 시	지 역	보험피해액
허리케인 Katrina	05. 8. 28	미국	$100-$250
허리케인 Andrew	92. 8. 23	미국, 바하마	$220
허리케인 Ivan	04. 9. 2	미국, 바르바도스	$110
허리케인 Charley	04. 8. 11	미국, 쿠바	$80
서유럽 폭풍 Lothar	99. 12. 25	프랑스, 스위스 등	$45
허리케인 Frances	04. 8. 26	미국, 바하마	$50
인도네시아 쓰나미	04. 12. 26	인도네시아, 태국	$50
허리케인 Isabel	03. 9. 18	미국, 캐나다	$10-$30
태풍 Bart	99. 9. 22	일본	$30
서유럽 폭풍 Martin	99. 12. 27	프랑스, 스페인 등	$22

※ 자료 : Swiss Re, 「Natural Calastrophes and Man-made disasters」

셋째는 '재보험 담보력 축소' 이다.

WTC 사고 여파로 Copenhagen Re, CAN Re, Royal & Sun Alliance 등 유수의 재보험자들이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대부분 재보험자들이 일부 종목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제공 담보력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 영국 로이드 시장의 경우에도 과거 400여 개에 달했던 언더라이팅 신디케이트의 수가 최근 150여 개로 급감하였다.

이와 달리 재보험 수요는 Terrorism, Cyber Risk 등 각종 위험과 매년 증가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추가적인 Protection Cover를 구득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늘어가고 있으나 담보 제공자의 감소 및 재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 적정한 담보를 구득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1년 말부터 약 300억 불의 신규 자본이 버뮤다 지역을 중심으로 재보험시장에

진입하여 축소된 시장담보력을 일부 보완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재보험 담보력 제공자가 감소하면서 대체 재보험자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재사가 인상된 요율과 강화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재보험자가 갖는 심리적 자신감도 보수적인 언더라이팅 정책을 유지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3. 2006년 재보험시장 동향 전망

이러한 재보험시장 경색화 상황에서 2006년 재보험시장 동향에 대해서 전망해보자.

가.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재보험시장의 향후 전망은 재보험자들의 수익성 추구와 시장점유율 경쟁이라는 상반된 가치에서 결정되는 태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추구를 위해 경영진의 주도하에 적정 보험 영업수지 목표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경우 요율인상 및 담보범위 축소가 나타나고 2005년보다 시장 경색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2002년 이후 재보험자들이 취한 기술적인 언더라이팅(Technical Underwriting) 원칙을 고수할 경우 현행 수준의 재보험시장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2005년 자연재해 급증

최근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일본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 빈발로 재보험실적이 급격이 악화되어 재재보험시장(Retro)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몬테카를로 재보험자회의에서 세계 재보험사 CEO들이 대형재해 이후 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계 재보험요율은 재물보험(대재해 담보, 에너지)의 경우 10% 내외 인상이 예상되고, 적하 · 운송보험은 카트리나 손실여부와 관계없이 요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박보험의 경우 대형손해가 없어 제한적인 요율 인상이 전망되고, 항공보험은 손해가 제한적이어서 단기간에는 안정된 후 장기적으로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보험사는 2006년 3월말 갱신되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담보 초과손해액재보험 계약과 관련, 재보험 한도가 축소되고 해외 재보험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일부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과도한 요율경쟁이 이루어졌으나 대형 재해로 인해 대형위험의 요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9.11 WTC 이후 시장 경색 상황에서 급성장한 버뮤다 등 신규 재보험자의 영업정책 및 성장여부가 세계 재보험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뉴욕 WTC 테러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국보험시장도 세계 재보험시장의 경색화에 따라 지난 2002년 갱신시 요율인상, 담보위험 축소, 공제금액 상향조정 등으로 인해 재보험계약 갱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최근의 대형 재해로 인해 재보험시장 실적개선 및 자본시장 경기추이에 따라 향후 요율 인상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로서는 해외 재보험자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국내 재보험 담보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내 보험사 간의 거래를 확대하고, 해외 재보험자와 가격 및 조건갱신시 국내 재보험자와 연대하여 협상력의 우위를 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점유율 확대라는 양적 경쟁보다는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한 위험도 평가, 가격 책정, 보유증대 등 기술적인 내부 역량을 확대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